

학부과정 교육학과의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별화 전략 : 교육학 계열학과의 취업률 및 교육과정 특성 분석에 기초하여

오경희 · 이지영[†]
(부산대학교 · [†] 부산외국어대학교)

A Differentiation Strategy to Improve Educational Competitiveness of Education Department in Undergraduate: Employment Rate and Curriculum Nature of Pedagogy Relation Department

Kyoung-Hee OH · Jee-Young LEE[†]
(Pusan National University ·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bstract

This paper focuses on a differentiation strategy to improve educational competitiveness of education department. The reason is that education department stand now on the brink of a precipice because of low employment rate. For this, I researched on 'employment rate' and 'curriculum nature' of educational technology department of YW university and A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department of S university and D university, educational psychology department of SW university which are all related to pedagogy relation department recording relatively high-employment rate.

Through the date, I'd like to emphasize that competitiveness of education department depends on a differentiation strategy and that strategy must be based on the influence of education with the consideration of obligation and characterization. And we find that a influence of education can be demonstrated in two aspects : a rational scheme's side and lively culture's side.

In the rational scheme aspects, diversification and specialization of curriculum content considering department characteristics and curriculum management including mentoring and sense of realism are emphasized. On the side of culture scheme, positive involvement of members, outlook on the world defined by the concepts like challenge and passion to the future, a sense of community.

These discussions will be a guide role on the future researches which focuses on improving competitiveness of education department.

Key words: Educational competitiveness, A differentiation strategy, Employment rate and curriculum nature

I. 서론

최근 학부과정 교육학과의 교직 진출을 보면 타 전공 학생들에 비해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 이는 높은 임용시험 경쟁률로 인한 교직 진출의

어려움과 졸업 후 진로의 불투명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학과는 교육학을 가르치고, 교육학 교사자격증과 학사학위를 수여하여, 입학한 학생들 대부분이 졸업시 교육학 2급 정교사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 Corresponding author : 051-640-3607, jyy74@bufs.ac.kr

최근 5년간 교원 임용시험에 교육학 과목 모집 인원은 없었다. 또한 지난 1982년 교육학과 졸업생들에 대한 도덕·윤리교사 진출 경로가 없어진 이후 교육학과 졸업생들은 복수(부) 전공 이수를 통해 교직진출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원 양성과 교직 진출에 있어서의 괴리는 교육학과의 정체성과 교육경쟁력에 대한 불안을 조장해왔다.

이에 본 연구는 학과적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교육학과의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별화 전략에 관한 논의를 주제로 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비교적 취업률이 높은 교육학 계열학과의 '취업률 현황'과 '교육과정 특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교육학과의 차별화 전략을 위한 방향을 논의해 나갔다.)

현재 노동시장에서 대학생들의 취업문제는 청년 실업자의 문제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되고 있을 만큼 대학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과(過)교육으로 인한 고학력 인적 자본의 집적 현상은 고등교육기관의 개혁과 재편을 필수적 과제로 만들고 있다. 학생들은 경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대학 교육의 의미를 찾고 있으며, 대학은 현재의 불안한 입지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동시장에서 특별한 가치를 부여받기 위한 방안을 세우는 데 역량을 모으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 학생들은 더 이상 대학에서의 전공과 직무간의 일치(Wolniak & Pascarella, 2005)나 직무만족을 위한 일 자체에 대한 자신의 흥미(Locke, 1976)와 관련하여 대학교육을 바라보기2)

보다는, 대학교육이 노동시장에서 자신들의 노동력을 얼마나 경쟁력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지에 더 관심을 둔다. 이러한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에 대한 수렴 결과는 최종적으로 학생들의 학과 선택으로 나타나기에(조승제, 2010), 더 이상 대학 또는 학과는 “교육의 상업화와 시장화에 대한 우려와 교육에서의 시장 논리의 비판”(Freire, 1998; Gibson, 2001; Kezar, 2005)만으로 이러한 현실을 피해갈 수 없다. 그러나 대학에서 취업에 관한 논의는 대학(또는 학과)의 생존과 사회적 책무 사이의 존재하는 고민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그동안 대학교육의 사회적 책무에 관한 논의는 상호 대립적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 예를 들면, 대학교육의 책무를 지식의 실질적 가치와 효용성에 두는 것(박민정, 2008)과 고등교육의 사명(조영하, 2010)3)에 두는 것을 들 수 있다. 말하자면, 대학교육은 가치적인 것과 기능적인 것을 중심에 두고, 사회적 현상에 따라 그 강조점을 달리하며 사회적 책무 개념을 다르게 접근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현재 대학교육의 책무성은 2003년 11월 교육부의 대학정책의 기본방향(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 대학의 자율역량강화, 경쟁을 통한 연구역량제고 등)이래로, 교육의 경쟁력을 위한 대학 특성화의 강조(양해림, 2006)에 두고 있다. 이는 타 대학과의 비교우위를 갖는 학과를 선택하여 그 분야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경쟁력 확보를 대학교육의 책무성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력의 척도는 가시적인 성과인 취업률이 되고 있다. 이때

1) 대학특성화알리미(<http://www.hiedumap.net/>)의 대학특성화 관련 질문인,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과, 대학 특성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대효과, 대학이 특성화를 추진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 특성화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할 기준으로 적합한 것”에 관한 질문에서 가장 많은 대답 중의 하나가 ‘취업률’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대학 또는 학과차원에서 취업률과 가장 맞아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교육과정이라고 볼 때, 학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취업률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본다.

2)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4학년학생들의 재학 중 ‘전공’에 대한 몰입 수준이 졸업 후 취업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전공 몰입과 취업의 질 정도가 비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차이가 있었으며, 여대생의 경우는 전공 몰입 수준과 취업의 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재윤·신희천·이지영, 2007).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주로 여학생들이 집중되어 있는 학과의 경우 진로지도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측면에서 일어나야 한다.

3) 근대 이후 고등교육의 사명은 주로 교육(Teaching), 연구(Research), 봉사(Service)라는 3대 요소를 중심으로 정의되어 왔다(Maurrasse, 2001; 이준형, 2004; 박의수, 2006; 김기석, 2008; Kim & Cho, 2008; 조영하, 2010; 재인용).

사범대학 교육학과와 같은 뚜렷한 목적을 가진 대학의 경우, 사실상 학과적 정체성에 대한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다. 왜냐하면 시대적 요구와 가치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가 학과 차원의 사회적 책무로 거론될지라도, 교육은 사회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내부적인 내연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왔기 때문에 교육학과로서는 취업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면, 사회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써 수행되어졌던 역량 있는 교사 양성을 위한 논의들(김이경·고대혁 외, 2004; 김이경·유균상 외, 2004; 소경희, 2003)과 같이, 주로 내실 있는 학교교육을 위한 교사 양성과정의 질적 변화를 가하는 것으로 사회의 요구에 대하여 반응해 왔다.⁴⁾

그러나 이와 같은 내연적 접근(예를 들면,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운영의 제고와 전문성 확보와 같은 논의)은 미래의 교사로서 역량과 자질을 갖추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현재 학생들의 현실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⁵⁾ 현재 학생들(또는 학생들의 현실)은 교육에의 투자와 산출의 불균형적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여력이 남아있지 않다. 이는 Schultz가 인간에 대한 투자란 단지 생각하는 것조차도 어떤 사람에게는 불쾌한 일이라고 표현⁶⁾하며 비판했던 방식(Karabel &

Halsey, 1985)과 다른 차원에서 비판되어질 수 있다. 말하자면, 이제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실제 시장과 연결되어 유용한 지식과 기술을 산출해내는 생산적 투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래서 교육의 차이가 현실적인 소득상의 차이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어떠한 교육에의 투자도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은 교육의 경제적 가치인 지출효용성에 대한 확실성의 보장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육학과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별화 전략에 대한 검토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다. 그러나 교육학과와 차별화 전략은 취업률과 같은 실질적·효용적 측면과 더불어 교육학과가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가치적 측면이 균형있게 고려될 때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지속적으로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는 교육학 계열학과와 취업률 현황과 교육과정 특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교육학과와 차별적 전략이 사회적 책무성과 특성화간의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다만, 학과 경쟁력을 취업률과 교육과정상의 특성이라는 다소 제한적인 자료를 통해서만 분석하였지만, 이와 같은 논의가 가치적이며 효율적인 교육학과 방향을 모색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주는 한 통로를 제공하리라 여긴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이 되고 있는 교육학 계열학과는 2010년에서 2012년까지 3년 동안의 ‘학과별 취업률 현황’을 통해 비교적 취업률이 높은 학과로 분류된 ‘교육공학과, 평생교육학과, 교육심리학과’이다. A대 ‘교육공학과’나 S대 ‘평생교육학과’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고, YW대 ‘교육공학과’나 SW대 ‘교육심리학과’는 2010년 낮은 취업률을 극복하였으며, D대·

4) 예를 들면, 2008학년도부터 부전공이 아닌 복수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거나, 일반학과와 교직과정에서의 교사 자격증 취득비율의 축소(30%에서 10%로)하거나, 2009학년도부터는 교직소양과목(교직실무, 특수교육), 현장실습 강화를 위한 교육봉사활동, 적성검사 및 인성검사 실시 등을 통해 교사양성과정의 질을 제고해나가거나 하는 것과 같이, 주로 내부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특성을 지닌다.

5) 김갑성 외(2009)의 경우, 교원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시스템에는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성, 교직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적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역시 주로 우수한 교원 양성의 배출과 관련하여 교원양성 교육과정 운영의 심각성에 바탕을 둔 것이지, 진정으로 학생들의 현실적 문제를 고려한 대책은 아니다.

6) 인간은 자본재로 간주되지 않기에 그리고 인간을 투자에

의해 증가될 수 있는 부라고 간주하는 것은 우리의 오랜 가치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며, 인간을 격하시키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인간자본이라는 개념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평생교육학과' 역시 비교적 안정적인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YW대와 A대의 '교육공학과', S대와 D대의 '평생교육학과', S대의 '교육심리학과'의 교육과정 특성 분석을 통해 교육학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사점으로 얻고자 하였다.⁷⁾

그리고 일련의 조사를 통해 교육학과 경쟁력 제고는 어떠한지 여부를 나름대로 조망해 보았다. 특히 대학 또는 학과의 사회적 책무성과 특성화는 어떠한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향후 교육학과의 발전 방향을 위한 계획에서 충돌되는 사안들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것이라 본다.

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육학 계열학과 취업률 및 교육과정 운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교육학 계열학과가 개설된 9개 대학 중 비교적 취업률이 높은 5개 대학의 교육학 계열학과(YW대와 A대의 '교육공학과', S대와 D대의 '평생교육학과', SW대의 '교육심리학과')를 대상으로 집중 분석하였다.

2. 연구과정

본 연구에서는 교육학 계열학과의 취업률 및 교육과정 운영 특성을 '대학특성화 알리미'에서 제공하는 취업률 현황과 교육과정에서 개설하고 있는 교과목, 그리고 연구대상 학교의 '학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진로 및 취업 특성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9개 대학 세 영역 학과(교육공학과, 교육심리학과, 평생교육학과)의 취업률 현황을 일차적으로 검토한 후, 취업률이 상

대적으로 높거나 비교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5개 대학 세 영역 학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운영 특성과 진로 및 취업 특성을 분석하였다.

예를 들면, "어떤 학과가 취업률이 높으며, 동일한 학과 중에서도 어떤 대학이 왜 취업률이 높은가?", "어떻게 특정한 대학의 학과는 안정적인 취업률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이들 학과의 교육과정은 어떻게 편성되어있으며, 매년 어떻게 재편해 나가는가?"를 기준으로, 교육과정 개설과목의 측면과 교육과정 운영의 측면(진로 및 취업을 위한 노력들)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들 자료를 근거로 취업률 향상을 위한 교육학과의 향후 방향을 제시하였다.

III. 학부 교육학 계열학과의 취업률 및 교육과정 특성(2010년~2012년)

다음은 교육학 계열학과의 취업률과 진로 및 취업 현황과 교육과정 특성에 관한 내용이다. 특히, 교육과정 특성은 취업률의 향상과 관련된 질문, 그리고 취업과 관련된 사항들에서 제기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답을 교육과정 특성 중 개설과목의 특성을 통해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질문과 답의 형식을 가진다. 비록 교육과정만으로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의 교육과정 개설교과목 변화를 살펴보는 것으로 이들 학과들이 교육과정을 통해 어떻게 현실에 대처해 나가는지를 참고할 수 있다.

1. 취업률 및 진로특성

8) 왜냐하면 당해 취업률은 적어도 이전 교육과정(최대 4년에서 최소 2년)의 영향에 있기 때문에, 어떤 해의 교육과정이 더 효과적이었는지를 파악하기가 힘들다. 또한 취업률은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계층적 측면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 특성을 통해, 학과차원에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기여하리라 본다.

7) 교육과정에 관한 자료는 홈페이지'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에서 제공된 것이다.

학부과정 교육학과의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별화 전략: 교육학 계열학과의 취업률 및 교육과정 특성 분석에 기초하여

가. 취업률 현황

다음은 ‘교육공학과, 교육심리학과, 평생교육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대학의 최근 3년간 취업률 현황과 교육과정 운영 특성을 통해 취업률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것이다. 현재 교육학 계열학과로는 교육공학과 5곳, 평생교육학과 3곳, 교육심리학과 1곳이 개설되어 있다. 최근 3년간 취업률의 변화는 사회조직체의 채용비율이 높아짐으로써 자연스럽게 취직률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교육 제도적 대응에 따른 것을 배제할 수 없다.9) 특히, S대의 평생교육학과, YW대와 A대 교육공학과와의 취업률은 다른 대학 동일 학과와 비교했을 때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Table 1> Classified by university and department
Annual status of employment rate
(in %)

Group		2012	2011	2010
		employment rate	employment rate	employment rate
Department of educational technology	K university	41.2	40.7	37.5
	G university	85.7	41.7	40.0
	A university	70.0	63.2	57.9
	YW university	50.0	64.0	42.6
	H university	53.3	55.6	45.8
Department of educational psychology	SW university	43.5	47.8	35.5
Department of Life Long Education	D university	62.4	57.5	70.4
	S university	88.7	67.7	70.0

출처: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연도별 공시자료

동일 학과인 ‘교육공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A대와 YW대의 지난 3년간(2010년-2012년) 취업률 추이를 보면, A대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높은 취

업률을 보이는 반면, YW대는 2010년 42.6%를 보이던 취업률이 2011년 64.0%로 신장된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동일 학과인 ‘평생교육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S대와 D대의 경우, S대는 비교적 안정적인 취업률을 보이는 반면, D대는 취업률이 2011년에는 급격하게 낮아진 현상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SW대 ‘교육심리학과’의 경우, 2010년에는 35.5%로 취업률이 급격히 낮아졌으며, 2011년에는 취업률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나. 진로 및 취업

다음 학과들은 학과적 특성을 살려 기업체 취업과 교직 및 교육 관련 취업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취업률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1) 교육공학과: YW대(사립대)와 A대(국립대)

YW대와 A대의 ‘교육공학과’의 취업 및 진로 특성을 살펴보면, YW대의 경우 주로 교육기관, 방송국, 대기업/일반기업의 HDR 전문분야, 교직(초·중등교사), 진학, e-러닝 전문기업, 교육컨설팅 기업으로 진출하고 있다. 그리고 A대 교육공학과 의 경우 대기업, 교육컨설팅, e-learning업체, 사이버대학, 대학원진학, 공공기관, 교사 및 교육행정학, 국가기관 연구소, 해외유학 등으로 진출하고 있다. 특히, A대의 경우 지방 국립대로서 다양한 진로를 개척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평생교육학과 : S대(사립대)와 D대(사립대)

S대와 D대의 ‘평생교육학과’의 진로 및 취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S대의 경우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여 대기업 및 개별 기업교육 컨설팅 회사에 취업하거나, 대학원으로 진학하고 있다. 그리고 D대의 경우 크게 평생교육 분야, 청소년 분야, 대학원 진학으로 나누어진다. 평생교육 분야로는 시도청 평생학습관 및 교육청, 문화센터, 학교부설평생교육원, 기업체, 기타 평생교육기관으로 취업하며, 청소년 분야로는 청소년

9)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에 공시된 교육학과 전체 취업률 현황을 통해 살펴본 바에 의하면, 2010년 30.3%, 2011년 35.0%, 2012년 39.8%로 나타났다.

수련관(원), 문화의 집, 복지관 및 기타 청소년기관으로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대학은 동일한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별 특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D대의 경우 일반적인 평생교육학과와는 달리 세 분야로 나누어 진로지도 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관련 진로를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교육심리학과 : SW대(사립대)

SW대 교육심리학과 진로 및 취업을 위한 노력은 두 측면에서 학과 특성화를 보여주고 있다.

하나는, 교육심리전공자들이 주로 취업하는 네 분야(상담·임상 심리 전문직 분야, 교육심리 전문직 분야, 측정·평가 전문직 분야, 교직분야)에 진출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다. 예를 들면, 이 학과에서는 진로분야에 담당교수진뿐만 아니라 상담관련 자문선배를 배치하며, 진로상담가이드를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학생 각자의 요구와 특성에 적합한 진로를 개척해 나가도록 지도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개별화 학습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습치료사, home therapist, 방과 후 학습지도사 등 학습부진 및 학습장애 학생의 지도를 담당하는 개별화 학습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교육과정특성¹⁰⁾

다음은 YW대학과 A대학의 ‘교육공학과’, S대와 D대의 ‘평생교육학과’, SW대의 ‘교육심리학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특성 중 개설과목의 특성과 취업 및 진로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가. 교육공학과: YW대(사립대)와 A대(국립대)¹¹⁾

두 대학 교육공학과 교육과정 개설과목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2> 참조).

두 대학은 학과 특성과 관련된 과목들을 집중 개설하여 학생들의 전문적인 직업 능력 및 역량을 개발하여 취업을 유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직과목을 함께 개설하여 교육전문가로서의 취업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말하자면 전문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취업의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과목들을 개설·운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특히, A대 교육공학과 경우 지방의 국립대라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서울에 있는 대학 못지않은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다.¹²⁾

이에, A대 교육공학과 교육과정적 측면에서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공학과 관련된 e-러닝분야를 특화, 학생들의 전문분야를 심화시킴으로써 학부 수준에서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다.

둘째, 매년 신설학과를 개설, 당시에 사회경제적 관심분야를 학과목으로 신설하여, 미래의 직업군을

대비하는 역동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2008년에는 주로 교육공학관련과목만을 편성하고 있는데 비해, 2009년에는 수업설계, 학습기술, 교육

학지도법과 같은 과목을 신설하거나 연계전공과목(동기이론과 수업설계, 창의적 사고개발, 학습과 개인차 등)을 개설하여, 교육공학에 교육학적 측면을 강조, 교육공학자로서 특정분야에 대한 이론 및 실무지식을 교육함으로써 전문가로 양성시키기 위한 체계화 작업을 볼 수 있다. 2010년에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신설,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필요한 교육전문가를 양성

10) “교육과정”은 홈페이지 “대학 알리미”에 공시된 내용을, “진로 및 취업”은 각 대학 학과 홈페이지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였다.

11) 일반적으로 교직은 7과목(*2=14학점)/교과교육 2과목(*2=4학점)/교육실습 1과목 (2학점), 총 20학점을 기본으로 한다. YW대의 경우 졸업인정 최소이수 학점은 135학점 이상이고, A대학의 경우 150점 이상이다.

12) A대는 교육공학과뿐만 아니라, ‘사범대학’ 내에 ‘윤리교육, 영어교육, 수학교육, 교육공학, 정보과학교육, 정보전자공학교육, 기계교육과’를 두는 것으로, 학과 특수성을 강조하며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학부과정 교육학과의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별화 전략: 교육학 계열학과의 취업률 및 교육과정 특성 분석에 기초하여

<Table 2> Curriculum of Department of educational technology

Year	YW University		A University		
	Term	subject name	Grade	division	subject name
2011	1-1	@ Educational Technology Photography	1	B a s i c subject	@ Educational Technology Development of Learning skill Software development I Software development II
	1-2	@ Information Society and Education @ Learning-Instructional Theory		major	@ Introduction to Education(new) @ Sociology of education교육사회(new) @ Educational philosophy & Educational History(new)
	2-1	Instructional Design Virtual Communication Computer Graphics	2	major	Motive Theory & Teaching Design Development of Creative Thinking Lifelong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Story Board Development technology & Education Teaching Design @ Educational Psychology(new) Develop of Computer based Teaching Method Requirement & Performance Analysis Teaching Design Model Business Training Industrial Training @ Teaching and Learning Theory(new) @ Curriculum(new) #
	2-2	@ Message Design Educational Video Production @ Corporate Education Educational Strategic Planning(new)			
	3-1	Logical Thinking in Education Development of Multimedia Contents Designing Technology-Based Learning Environment Evaluation of Educational Program Instructional Design Studio(new)	3	major	Learning & Individual Difference Message Design & Development Human Resources Development E-learning Contents planing & design @ Evaluation of Educational Program @ School counseling(new) Design of constructivism class @ Educational Administration & Management(new) Development of Multimedia Contents @ Research Methodology(new) @ Lifelong Education (new) # Teaching Materials and Methods for Subject Matters Development & Evaluation of Business Training Industrial Training(new)
	3-2	Material & research methods in Education @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Educational Resources Development of Multimedia Contents II Research Methods in Education(new)			
	4-1	Research Trends in Educational Technology(new) @Human Resources Development Design of Educational Facilities and Resources Distance Education(new)	4	major	Leadership & communication The Theories of Civic Education Internet Education Broadcasting Business Administration of lifelong Education # Logic and Discourse(Education) Distance Education Vocational Ethics & philosophy Esthetics of Multimedia Lifelong Education methodology Practicum in Lifelong Education
	4-2	Project Management in Educational Technology Media Literacy in Education @Instructional Systems Development Learning and Knowledge Management			
	summer/wi nter session	ET Internship I ET Internship II			Internship 1-1 Internship 1-2
	※ offer a major : 28 @ : required subject of a course in teaching			※ offer a major : 46 @ : required subject of a course in teaching # : subject matter education	

하기 위한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2011년에는
순수 교직과목을 신설, 학교 교사 양성을 위한
취업 또한 모색하고 있다.

셋째, 다양한 과목을 개설, 취업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2008년 37개과-2009년 38개 과목
-2010년 37개 과목-2011년 46개 과목 개설). 현재
대학의 학과들은 학과차원의 경쟁력을 위해 간학

과적 차원에서 시도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공
대에서 교직을 이수, 기업 내의 교육담당 전문직
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
면에서 교육공학과는 가장 시기적절한 대응책이
라고 볼 수 있다.

나. 평생교육학과 : S대(사립대)와 D대(사립

대)¹³⁾

두 대학 평생교육학과의 교육과정 개설과목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3> 참조).

두 대학은 평생교육학이라는 학과특성과 관련

된 과목을 집중적으로 개설, 학과 특성을 살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교육공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두 대학(YW대, A대)과 유사하다. 그러나 S대가 주로 기업과 연결, 기업 전문가로서 평생교육전문가를

<Table 3> Curriculum of Department of Life Long Education

Year	S University			D University		
	Term	Division	subject name	Term	Division	subject name
2011	1-1	basic liberal arts	Chapel Reading & Writing English conversation1 Excel	1-1	basic liberal arts	English conversation I Seminar on Lifelong Education I Society and the Media(new)
		elective liberal arts	Choose in liberal arts areal		liberal arts	Choose in liberal arts areal
		Basic subject	Life Long Education Principle of Lifelong Education Selfleadership of Lifelong Educator		Basic subject	Introduction to Education
	1-2	basic liberal arts	Chapel The Bible 2(e-Learning) The Bible 1 English conversation 2 Powerpoin	1-2	basic liberal arts	Seminar on Lifelong Education II Composition & Expression Enlightenment of social-minded activities Human & Culture
		elective liberal arts	Choose in liberal arts areal		core liberal arts	Complete a course in 2 subject(6 units)
		Basic subject	Presentation technique for Lifelong Education		Basic subject	Presentation technique for Life Long Education
	2-1	basic liberal arts	Chapel practical reading & Writing	2-1	basic liberal arts	Seminar on Lifelon Education III(new) TOEIC
		elective liberal arts	Choose in liberal arts areal		core liberal arts	Complete a course in 1 subject(3 units)
		elective subject	Life Long Educati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Adult Learning and Counseling Philosophy of Lifelong Education of Lifelong Education		core major	◆ Family Counseling ◆♣ Adult Learning and Counseling
	2-2	basic liberal arts	Chapel	2-2	basic liberal arts	Seminar on Lifelong Education IV
		elective liberal arts	Toaic 800		liberal arts	Toaic 800 (Choose in liberal arts areal)
		elective subject	Methods of Lifelong Education Distance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in Lifelong Education Psychology of Lifelong Education Human relations & Communication		core major	History and Philosophy of Adult Education ♣ Continuing Education for the Aged
				major	♣ Adolescent Psychology and Counseling ★ Youth Welfare Theories of Corporate Education ◆ Career Counseling Lifelong Learning Organization	

13) S대의 1998년 국내 최초 4년제 대학에 평생교육학과를 설치하였으며, D대의 경우 2001년 인문대학 교육·윤리학부 평생교육학전공을 신설하여 평생교육전문가를 양성해 오고 있다. 그러나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이들 학교의 학과들은 2009년부터 교육과정이 체계화되어 있어, 여기에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만 참고로 하였다.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주로 개설하는 데 비해, D대의 경우 청소년과 연결, 청소년 전문가로서 평생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먼저, S대의 경우 학교 설립 취지가 기독교정

학부과정 교육학과의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별화 전략: 교육학 계열학과의 취업률 및 교육과정 특성 분석에 기초하여

201	3-1	basic liberal arts	Chapel	3-1	convergence liberal arts	Complete a course in 2 subject(6 units)
		elective subject (intensive)	Teaching and Learning Theory Women Education Management of Lifelong Education Study on Community Education Self Directed Learning & Development of Teaching and Learning system		basic liberal arts	Seminar on Lifelong Education V
					core major	◆ Psychological Testing ★ Development & Evaluation of Youth Program
					intensive major	♣ Human Resource Development ★ Youth Problem Behaviors and Protection ★ Youth Activity ◆ Counseling Practice ♣ Study on Community Education
	3-2	basic liberal arts	Chapel	3-2	convergence liberal arts	Complete a course in 2 subject(6 units)
		elective subject (intensive)	Creativity Programs Development in Lifelong Education Lifelong Education Practice Application & development of e-learning Nee Assessment in Corporate Education		basic liberal arts	Seminar on Lifelong Education VI
					core major	◆ Foundations of Group Counseling ♣ Methods of Educational Assessment ♣ Methods of Lifelong Education
					intensive major	◆ Vocational Information ★ Methods of Youth Education & Development Project Planning for Lifelong Education
	4-1	elective subject (intensive)	Continuing Education for the Aged Administration & Management of Lifelong Education Methods of Lifelong Education U-Learning & Lifelong Education cooperation Career Development & Organization Development	4-1	convergence liberal arts	Complete a course in 2 subject(6 units)
					elective subject (intensive)	★ Youth Policy and Law ♣ Distance Education ♣ Management of Lifelong Educational Organization ♣ Program Development in Lifelong Education
	4-2	elective subject	self development & Blended Learning Vocational Education & Silver Industry Lifelong Education Lecture Evaluation of Corporate Education	4-2	convergence liberal arts	Complete a course in 2 subject(6 units)
					intensive major	Seminar on Lifelong Education Literacy Education Counseling Practice of Lifelong Learning ♣ Lifelong Education Practice Need Assessment in Lifelong Education
※ offer a major : 48(required subject of a course in teaching & elective subject of a course in teaching : 16)				※ offer a major : 53(except from core liberal arts & convergence education liberal arts) ♣: lifelong educator subject, ★: youth field specialist ◆: required subject of a course in teaching		

신에 토대가 두고 있기에 전 학년에 채플을 필수 과목으로 두고 있다. 또한 학교차원에서의 경영 목표가 “특성화, 취업률제고, 국제화, 전문화”에 두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09년 1,2학년 교필에서 개설되었던 영어 관련 강좌들이 2010년 1학년 2학기 전공과목에 영어강좌를 개설, 영어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개설 과목의 특성을 보면, 이론과 실체를 적절히 편성함으로써 실용적인 관점에서 연구와 개발

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업연수기관 및 사회교육기관 등 각종 평생교육기관의 교수자로서의 실제적인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분석, 기획, 관리, 평가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길러냄으로써 연구자로서의 가능성 또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지방 사립대임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취업률에서 매년 상위권에 속해 있는 D대학 평

생교육학과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목 개설이 특성화되어 있다. 다양한 전문가를 위한 과목들(‘평생교육사 과목 16과목, 청소년지도사 과목 8과목, 교직과정 기본이수과목 8과목 개설’)을 개설, 학부수준에서 전문가적 역량을 길러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둘째, 다수의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9년에는 총54과목, 2010년에는 총60과목, 2011년에는 총 53과목(핵심교육과목과 융복합교양과목 제외) 개설하여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확대시키고 있다.

셋째, 이수구분에서 교과목 개설이 다양화되어 있다. 이수구분에서 ‘기본교양, 핵심교양, 학문기초, 전공핵심’을 두어 다양화했으며, 2011년에는 1,2학년에는 ‘핵심교양’과목을, 3-4학년에는 ‘융복합교양’과목을 개설하여, 보다 다양화된 형식을 갖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고 있다. 2010년 1학년부터 3학년 동안(총 6학기) 지도교수세미나를 매학기에 개설하여 학생들의 취업과 진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 교육과정의 특성을 보면, 평생교육 관련 과목과 청소년교육 관련과목으로써 심리 및 상담, 복지, 아동교육관련 과목을 편성, 최근 급속히 요청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과 청소년교육 및 상담기관에서 필요한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전공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진로개발과 산학연계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교육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다. 교육심리학과 : SW대(사립대)

SW대 교육심리학과는 교육과정 개설과목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W대 교육심리학과는 국내 유일의 교육심리학과로 특성화된 학과이다. 이 학과는 대학원 수준

의 전문성을 고려한 교과목들을 학부에 개설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도 실습과 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현장과의 연계, 진로 및 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교수·학생, 선배-후배와의 멘토링 등의 특성화된 방식을 취하고 있다.

<Table 4>의 교육과정에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을 살펴보면, 교육학과 심리학 분야의 기초이론과 교육심리학, 학습 심리학, 교수이론, 교육과정론, 교육심리통계 등을 비롯하여 발달심리학, 상담심리학, 심리검사론, 성격심리학, 이상 심리학, 생활지도 등이 개설되어 있다. 이러한 교과목들은 전문적인 이론교육과 함께 실습교육에 많은 비중을 두고 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성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개별 지도의 강화, 다양한 학문 분야의 탐색, 인간 이해와 상담에 필요한 교과 편성 및 실습의 강화, 현장실습 및 자원봉사 활동의 기회, 각종 교육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그 운영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교육자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학과 특성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몇 가지 제도를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첫째, 지도교수 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입학 직후부터 4년 간 동일한 교수가 지도교수로 배정되어 학생 개개인에 대한 개별적인 상담활동을 통하여 각자의 요구와 특성에 적합한 진로를 개척해 나가도록 지도하고 있다.

둘째,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를 권장하여 교사 및 상담자로서의 폭 넓은 학문적 기초와 다양한 진로 개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도록 지도하고 있다.

셋째, 상담자로서의 능력도 갖추 수 있도록 교과를 편성 운영하고 있다. 학교상담의 이론과 실습을 포함하여 청소년 및 여성 상담, 학습장애 진단 및 치료, 가족상담 등 관련 교과를 다양하게 개설하여 학교 현장의 교사로서 뿐만 아니라

학부과정 교육학과의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별화 전략: 교육학 계열학과의 취업률 및 교육과정 특성 분석에 기초하여

<Table 4> Curriculum of Department of educational psychology

Year	SW University					
	Term	Division	subject name	Term	Division	subject name
2011	1-1	required course	Introduction to Education	1-2	required course	Introduction to Psychology
		elective course	Understanding Self and Environment I		elective course	Understanding Self and Environment II
	2-1	required course	Educational Psychology Statistics in Educational Psychology I	2-2	elective course	Curriculum Guidance Textual exposition of Educational psychology Personality psychology Statistics in Educational Psychology II Diagnostic Evaluation for Academic Performance
		elective course	Developmental Psychology			
	3-1	elective course	Educational & Psychological Measurement ◆ Theories of Instruction(Counseling) Family Counseling ★ Abnormal Psychology ★ Psychology of Learning ★ Theories of Psychology and Counseling Plan for Teaching & Learning ★ Guidance and Counseling for Children with Special Needs	3-2	elective course	Educational evaluation ★ Counseling practice & case study Parental education Develop test ★ Method of guidance for learning coun- seling(new) ◆ Teaching Materials and Methods for Subject Matters(counseling) Motivation to Learn(new) Case analysis of integrated approach(New) Analysis of teaching action
	4-1	required course	Research Methodology	4-2	elective course	Project-Based Learning in Educational Psychology (new) ★ Group Psychology Clinical Psychology Practicum in Counseling
		elective course	Seminar in Educational Psychology ★ Career Counseling Cognitive Psychology ★ Adolescents counseling ★ Psychology Evaluation ◆ Logic and Discourse(counseling) Play Therapy(new)			
	※ offer a major : 43(required course-15 / ★ : primary subjects of a course in teaching, ◆ : required subject of a course in teaching)					

사회 현장에서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상담자 및 교사로서의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넷째, 상담 실습 기회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학교상담, 청소년 및 여성 상담, 학습장애 진단 및 치료, 가족상담, 부모교육, 평생교육 등 다양한 인간발달 측면과 인간관계 측면에서 필요한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운영에 참여시켜 상담 훈련과정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중등학교 심리학 교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지도하는 동시에, 사회교육기관 및 복지기관에서 청소년 상담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상담교사와 평생교육사로서 자격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적

역량을 기르고자 하는 데 있으며 근본적으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장치이다. 또한, 한국심리학회가 인준하고 있는 상담심리사, 상담심리 전문가, 임상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원과의 교육과정을 연계시켜 지도하고 있다.

IV. 교육학과의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합의

대학의 기능은 연구, 교육, 사회봉사를 수행하는 것에 있다.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내기 위한 연구, 후진 양성을 위한 교육, 현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을 배출하는 것으로 그 시대의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여 충실히 수행하는 것

이 대학의 역할이다. 특히 인재양성은 대학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대학생들은 미래의 다양한 직업군 속의 인적 자본이다. 대학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해 나가느냐에 따라, 그 분야의 직업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질적 차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는 사회봉사적 차원에서 대학의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것이다. 단순히 Schultz가 인간자본론에서 강조했던 개인적 생산성(productivity)의 증대나, 국가적 경제성장을 위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으로의 능력개발이 아니다. 조직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조직 내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며, 조직과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말하자면, 대학의 기능은 사회봉사의 가치를 근간으로 교육과 연구의 상호성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조직과 개인의 성장을 함께 돕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학과의 기능과 역할 또한 사회적 책무성을 바탕으로 차별화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취업률이라는 수치의 고려라기보다는, 학과적 정체성과 특성화가 적절히 조화된 것을 말한다. 즉 그 학과만의 고유한 가치 교육이 반영된 특성화를 말한다. 왜냐하면 차별화는 따라가기 식의 교육프로그램상의 특성화가 아니라, 지역별·대학별·학과별 차원 등이 다각적으로 반영된 차별화를 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별화된 교육과정은 똑같은 인재를 많이 배출하기보다는 다른 대학의 교육학과와는 다른 특성 있는 인재를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를 통해 경쟁력을 가지며, 결과적으로 장기적 안목에서 지속적인 취업률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학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이 일어나야 하며, 특성화는 교육 주체들의 교육력을 길러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대학(학과)의 책무성이란?

사회적 요구에 대한 파악은 대학이 그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된다. 대학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우선순위는 무엇보다 인재 양성일 것이다. 이때 대학은 무엇보다 ‘어떤 인력을 양성할 것인지, 그리고 인력을 어떤 측면에서 양성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말하자면, ‘책무성’ 또는 ‘수월성’ 중에서 어디에 더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양립의 관계 또는 균형적 관계에 있다. 대학의 책무성은 일종의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적 경쟁 속에서 대학의 사회적 책임은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사회적 책임은 사회적 요구에 대한 반응이며, 사회적 요구는 사실상 시대적 요구와 가치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대학의 사회적 책임도 이에 따라 변화(Ward, 2003)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하에서 경쟁력 강화만이 대학의 존립을 기대할 수 있는 불안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대학의 상업화 또는 시장화는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간과한 것은 사회 변화에 대한 접근 방식 또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변화한다는 사실이다. 기존의 대립적 논지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되었던 수월성과 공공성, 상업화와 학문적 상아탑, 보편성과 특수성 등과 같은 개념들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졌다. 이는 그 본질적 의미보다는 사용 방식 또는 조합 방식을 말한다. 말하자면, 이전에는 주로 개별적 개념을 강조하는 것으로 한 개념만이 절대적인 것으로 강조되었다면 지금은 개념들 간의 통합적 원리를 강조하는 것으로 개념의 활용 접근 방식이 변화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 또는 학과의 책무성에 관한 개념 역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여, 개념적 분리보다는 통합적 형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조영하(2010)는 대학의 사명에 대한 개념적 논의를 통하여 봉사가 대학의 전통적 혹은 신(新) 사명들을 관통하는 핵심 요인이며,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는 준거라고 했다. 그는 대학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적 맥락에서 정의되고 있으며, 사회란 구성원들 간 상호 기대가 부합될 때 비로소 관련성(상호 이익의 호혜적 관계)을 가지는데, 관련성 형성에는 대학의 봉사가 큰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Tierney(1999)의 말을 인용하여, 대학은 교육공동체(Educational Community), 학문적 자유, 접근성(Access)과 형평성(Equity), 수월성(Excellence)과 완전성(Integrity), 탐구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진다고 설명한다. 즉,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학문' 또는 '교육'에 두며, 자율성과 형평성, 공동체를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조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추상적, 이론적인 것일 뿐이다. 현재 대학들은 교육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전문성이 강조되는 교육의 질적인 측면과 취업률이 강조되는 교육의 양적인 측면을 동시에 이루어내야 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다. 이는 대학의 졸업장이 이제 더 이상 학습자의 능력을 인증하는 보증서 역할을 충분히 해 내지 못하게 됨에 따라, 대학 그 자체가 가지고 있던 경쟁력에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학력(學歷)이 학력(學力)을 보증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써 대학교육은 지식의 실질적 가치와 수월성을 담보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사회와의 균형 있는 연계 및 원활한 소통 역시 한계를 가지게 됨에 따라,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박민정(2008)의 경우, 학교가 생산하는 학력에 대한 불신에 대응하여,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역량기반 교육과정 담론은 대학을 사회변화와는 무관한 상아탑으로 간주하는 전통적 아카데미즘이나 사회변화에 지나치게 민감한 직업훈련기관으로 보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대학교육의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규정하는 대안적 접근으로 논의(Barnett, 1997; Candy, 2000; Star & Hammer, 2008; 재인용, 2008)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역량기반 교육과정 담론은 사회변화에 따른 대학 교육의 역할과 기능 변화를 촉구하는 것으로, 대학의 책무를 강조한다. 말하자면, 학력이 곧 그

사람의 능력이며 역량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의 질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대학의 책무라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마미화(2006)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한 교육적 위기의 현실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민 교육 운동을 조직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시민 교육 운동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고려하면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문제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불가피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수용하면서도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즉 그는 교육 부분에서 신자유주의 경제논리를 우선으로 하는 교육정책이 교육 불평등과 교육 공공성의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이러한 교육적 위기는 국가적 노력뿐만 아니라 공적 시민 양성을 통한 시민적 연대와 대안적 시민 교육 운동을 조직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극복될 수 있다고 본다. 박민정의 역량기반 교육과정과 마미화의 대안적 시민 교육은 그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다. 말하자면 대학은 수월성과 책무성을 균형 있게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현 교육정책 하에서 대학 또는 학과는 무엇보다 학생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사회 참여 기회는 차별화된 교육을 통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 대학 또는 학과의 사회적 책무라고 볼 수 있다.

2. 대학(학과)의 특성화란?

최근 '대학특성화알리미'를 통해 진행된 '특성화이슈'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그 내용과 결과를 보면, 현재 대학들이 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개혁을 시도하고자 하며, 또한 그러한 시도에 있어 고민에 싸일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5> 2009-2010 Questionnaire result of 'higher education specialization'

the most important thing : For University competitiveness provision (2009.03.11-2009.03.25)	-Secure an outstanding teaching staff (29) -Efficiency of university management (13) -Secure rate and employment rate(31) -Strengthen Professional Competency : Through specialized (31)	104
main expected effect : Through University competitiveness provision (2009.03.11-2009.03.25)	-Improvement in secure rate and employment rate(37) -University promotion(reputation of university) (39) -Considering quality of university (23) -Area and industrydevelopment contribution(5)	104
A standard of judgment: effectiveness of University competitiveness provision (2009.12.09-2009.12.31)	-Achievement of university structural reform(2) -Scale of funding University competitiveness provision(0) -Employment rate of university graduate(0) -Specialization of curriculum(4) -Awareness improvement of academics competitiveness provision (5)	11
main difficulties : performing University competitiveness provision (2010.01.05-2010.04.01)	-Scarcity of sympathy for the necessity of university specialization(5) -Secure funding for push forward university specialization(4) -Difficulty of selection for specialized area : different studies' interests(6) -Insufficiency of a practical application ways(1)	16

위 조사 내용은, (비록 수적으로 참여자가 많지는 않지만)현재 대학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의 특성화'를 추진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대학의 경쟁력은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가능하고 또한 이러한 특성화가 취업률과 연결되어 다시 대학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는 순환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특성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학과의 인지도에 있다는 사실은 '특성화'용어 그 자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일어나야 함을 시사한다.

먼저, 특성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취업률이었지만, 특성화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학과의 인지도라는 사실이다. 인지도는 단순한 요인에 의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지도는 사람들이 장시간 그와 같은 특성으로 사물이나 물건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이는 일시적인 유명세와는 다르다. 또한 인지한다는 것은 계량적 특성만으로 파악된 것이라기보다는 주변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들에 의한 복합적 특성에 의해 특정 대상의 이미지가 자리 잡은 것이다. 말하자면 특정 대학 또는 학과에 대한 이미지를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결과적 측면뿐만 아니라 과정적 측면을 중시하며 누적된 형식으로 축적되어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교육의 과정이 어떻게 구조화되어있고, 교과목간 또는 전공과목간 어떻게 관련성 있게 연계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교과내용과 교수-학습 과정이 어떻게 체계화되어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오랜 시간을 걸쳐 수행되어 온 것으로, 결과적으로 그 학과의 이미지와 함께 학과 선호라는 경제적 합리성으로 이어진다. 이는 가시적인 측면과 비가시적인 측면이 혼합된 형식으로써 이미지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체제에서 교육에서의 경제적 합리성 추구는 학생을 인적 자본으로 보고, 미래의 노동자로서 경쟁적인 세계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획득하도록 요구하며, 이때 학교는 이러한 경제적 목표와 직접 연관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자원을 낭비하는 블랙홀(마미화, 2006; 53, '주석2')로 여긴다.

다음으로, 대학 특성화는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데 있다. 그러나 교육에서의 진정한 경제적 합리성은 "형식적 합리성보다는 실질적 합리성"¹⁴⁾(강수택, 1998)과 가깝다. 그리고 Husserl이

14) Habermas는 근대화와 함께 일생세계의 탈마력화(종교적인 것과 형이상학적인 것이 배제되어 가는 현상)와 그 결과로서 합리화가 급격히 진행되었는데, 그것은 실질 합리성의 증대보다는 형식 합리성의 증대라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강조한다. 형식 합리성은 전문화, 제도화뿐만 아니라 가치 영역의 분화를 초래하며 각각 고유한 법칙성을 갖는 지식 복합체들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러한 형식 합리성이 생활세계를 단편화와 문화적인 빈곤화를 초래한다고 비판한다. 그는 Marx의 설명 방식에

주장하는, 보다 높은 수준의 인간성과 이를 기초로 한 문화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인 것으로의 합리성(강수택, 1998)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진정한 의미의 이성, 진정한 의미의 합리성으로, 일상생활과 관련되어진 합리성인 것이다. 이러한 합리성은 교육 주체들의 경험적 자료가 수학적 정식화로 표현된 것으로, 교육 주체들에 대한, 그들을 위한, 그리고 그들에 의한 교육력을 산출한 것이다. 이때, 대학 특성화는 평균적인 다양성을 말하기 보다는, 사회적 상황 및 이것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교육 주체들의 요구와 선택에 의한, 집중을 위한 노력의 다양성을 말한다.

이에 학과(또는 대학)의 특성화 추진은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학교 내부의 구성원들과 학교 외부의 요구사항들을 적절히 조절해나가는 교육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학의 특성화도 <Table 5>의 대학 특성화와 관련한 설문에서의 답변과 같이, 학교내 공감대 부족과 학과 간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면 그 선정부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각 대학 또는 학과 차원에서 보다 적합한 특성화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

3. 교육학과의 경쟁력을 위한 차별화

지금까지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별화 전략에 관한 논의를 통해 강조되었던 책무성과 차별화는, 교육학과의 ‘경쟁력이란 무엇이며, 차별화 전략은 어떠한가?’에 관한 과제의 전제로, 보다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교육학과의 경쟁력은 책무성과 특성화와 같은

학과적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에 따라 길러진 교육력에 의해서 비로소 가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력은 ‘이성적인 계획의 측면’과 근원적인 생동성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문화의 측면’에서 발휘될 수 있다.

‘이성적인 계획의 측면’에서는 교육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학부와 대학원을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구성, 그 학과 특성에 맞는 심화과정을 두어 대학원 수준의 역량을 길러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교육학과 1학년 과정은 교육학개론과 같은 교육학 관련 과목을 기본이수과목을 지정하되, 2학년부턴 교육학 계열학과와 같이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보다 특화된 형식의 교육과정을 배치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학 하위전공분야의 분과지향성을 탈피하여 중등교사들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지식과 능력을 길러줄 수 있도록 전공간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결합과 통섭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시대와 사회적 요구를 고려한 학과 차원의 특화된 교육관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다. 학과적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여 취업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과 동시에 취업보장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각기 전공 성격을 띤 교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하여 다양한 전문가로서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운영에서 멘토링제와 현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멘토링제는 교수 멘토링제, 선배 멘토링제, 동료 멘토링제와 같이 다양한 멘토링제를 활용, 학생들 각자의 요구와 특성에 적합한 진로를 구체적으로 계획·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담당지도교수제’를 도입하여 계획적이며 적극적으로 학생들과의 관계를 형성한다든지, ‘선배 멘토링제’를 활용하여 취업한 선배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든지, 또는 ‘동료 멘토링제’를 활용하여 현 시대가 요구하는 취업의 종류와 전망에 관하여 정보를 교환한다든지 등과 같이 다양한 유기적 관계망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양한 진로

따라 이러한 형식적 합리화가 이루어진 이유를 자본주의적인 생산 양식이 성립, 확대되면서 가치 실현의 과정은 사용 가치로부터 분리된 채 이윤 추구에 기초한 자본의 고유한 논리를 따라서 진행되어 왔다고 설명한다(강수택, 1998). 이러한 Habermas의 형식 합리성에 관한 설명을 통해, 교육의 영역에서 합리화는 형식적 합리성이 아닌 실질적 합리성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개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과 연계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형 교과과정을 도입하여 실용성 있는 학문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취업률에서 직업의 종류와 계약기간(임시직과 정규직)에 관한 검증이 요구되며, 이러한 검토가 교육과정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 미래지향적 직업군을 형성하는 시초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지역권을 고려한 대학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역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적 측면’에서는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도전과 열정의 개념으로 특징 지워진 세계관, 공동체적 정신 등과 같이 교육학적 관점에서 유도할 수 있는 학과 문화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학생들 차원에서 미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진정한 용기와 도전을 향한 열정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학과적·학문적 경계를 넘어 자기 훈련과 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한 장, 또는 여가시간의 계획적인 활용 등, 자신의 미래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쏟으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학부 저학년에서부터 일어나야 하며, 다양한 측면에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들을 찾아나가는 통로가 된다. 다음으로, 학교를 넘어 세상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회와 학교는 분리될 수 없다. 그리고 교육의 과정에는 사회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비록 학생으로서 실제적인 변혁의 시도는 어려울 수 있으나, 학과 차원에서 평균적으로 주어지는 기회를 넘어 자신의 일,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이를 위한 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자신의 삶의 결정은 타자나 사회가 인정한 공식에만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적 차원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개별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동료와 함께 고민하는 공동체적 관계망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현실은 공동체적 관계망이며, 우리가 당면

한 과제는 개별적 연결 없이 해결하기는 힘들다. 관계망 형성, 공동체 형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공감, 인간존중 등은 최근에 구성원들에게 가장 강조되는 특성들로, 그동안 특정한 힘에 의존해 왔던 수동적 사고를 벗어나 ‘함께’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으로 사회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학생들은 동료와, 선배와, 교사와 함께 미래에 대한 신뢰적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때 미래에 대한 불안은 긍정적인 긴장으로 환원될 것이며 삶에 대한 보다 도전적이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 대학 또는 학과 경쟁력 제고를 향한 노력들은 차별화 내지 특성화 전략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선택과 집중에 의해 실천되었다. 그러나 어떠한 의심의 여지도 없는 성공과 확실성을 보장하는 미래의 장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래는 다양성과 자율성을 근거로 한 공동체 사회이며, 변화와 불안 속에서 새로운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예측할 수 없는 사회이다. 따라서 미래에 대비하는 교육학과 경쟁력은 오히려 학과적 정체성을 성실히 지켜나가며 동시에 그러한 고유한 정신력으로부터 변화를 위한 용기를 키우는 데 있다고 하겠다. 이는 강한 내적 확신과 이 확신에 기반을 둔 열정과 인내에 의해 형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 위에서 확신을 가지고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처해 나가는 교육학과는 소극적 의미의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 의미의 ‘자라나게 하는’ 교육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육학과와 경쟁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V. 나가며

이 연구는 현재 저조한 취업률로 인해 학과적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교육학과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별화 전략에 관한 논의를 주제로 삼고 있다. 그리고 차별화 전략은 책무성과 특성화가 고

려된 교육력에 기초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비교적 취업률이 높은 학부 교육학 계열학과인 YW대와 A대의 '교육공학과', S대와 D대의 '평생교육학과', SW대의 '교육심리학과'를 중심으로 '취업률 현황'과 '교육과정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교육학과의 '경쟁력이란 무엇이며, 차별화 전략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교육학과의 경쟁력은 학과적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에 의해서 길러진 교육력에 의해서 확보될 수 있으며, 이러한 교육력은 '이성적인 계획의 측면'과 근원적인 생동성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문화의 측면'에서 발휘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성적인 계획의 측면'에서는 학과적 특성에 기초한 교육과정 내용의 다양화와 전문화, 멘토링제와 현장성 등을 도입한 교육과정 운영을, '문화적 측면'에서는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미래에 대한 도전과 열정의 개념으로 특징 지워진 세계관, 공동체적 정신 등을 강조하였다.

요컨대, 이제까지 학부 교육학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별화 전략에 관한 논의가 주로 내실있는 학교교육을 위한 교사 양성과정의 질적 변화를 가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요구나 사회의 요구에 대하여 실질적인 대응이 되지 못함을 반성하며, 21세기 경쟁력을 위한 교육시스템 속에서 교육학과의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책무성과 특성화가 고려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교육학과 본래의 학과적 특성을 기초로 특성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차별성을 가지게 되며, 이것이 곧 교육 경쟁력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교육학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데 있어 길라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Reference

- Gang, Su-Taek(1998). Paradigm of everyday life: understanding of modern sociology, Seoul : Minumas.
- Kim, Gap-Seong et al.(2009). Study on teacher education system reform. Study on teacher education system reform,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Reporting Issues OR 2009-02.
- Kim, Yig-Yeong et al.(2004). Study of qualified teachers training system reform.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Commissioned Research CR 2004-21.
- Kim, Yig-Yeong et al.(2004). Teacher evaluation system research.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Basic Research RR 2004-08.
- Ma, Mi-Wha(2006). Articles : The limits of neo-Liberal educational policy and citizenship educational counterproposal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Theory and Resr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38(1): 49~70.
- Park, Min-Jeong(2008). A new approach to curriculum development in higher education: competence-based curriculum,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6(4): 173~197.
- So, Kung-Hee(2003). Exploration of new directions -reconceptualization of teacher professionalism'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1(4): 77~96.
- Yang, Hae-Rim(2006). Philosophy as a differentiation strategy at the age of decentralization-focusing on the curriculum of the philosophy department at the university in Daejeo-.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al society, 99(8): 216~240.
- Lee, Sang-Cheol(2011). Innovation and the challenges of a college education - faculty of education and research status and development plan, HW Pusan National Education Forum balpyojip, 9: 110~125.
- Chang, Jae-Yoon · Shin, Hee-Cheon & Lee, Jee-Young (2007). The effect of commitment toward college major on the quality of employment among college graduates, The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20(4): 415~435.
- Jo, Seung-Jae(2010). A Study on Determining Factors for Community College Students' Department Choice Based on Customers' Centered Education, Andragogy Today :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 Education. 13(3): 111~151.
- Cho, Young-Ha(2010). Social Responsibility of Universities in the 21st Century - Focus on the Discourse upon Social Engagement,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28(1): 1~30.
- Apple, W. M.(1985). Education and ideology. Park, Bu-Kwon & Lee, Hae-Young(trans.), Seoul: Hangilsa.
- Freire, P.(1998). *Teacher as cultural workers: letters to those who dare teach*, West View Press.
- Gibson, C.(2001). *From inspiration to participation: a new of perspectives on youth civic engagement*, Berkeley, CA: the Grantmaker Forum on Community and National edvice.
- Giroux, H. A.(2002). Teachers are intellectuals. Lee, Kyung-Sook(trans.), Seoul: Morning Dew.
- Kezar, A.(2005). *Challengers for higher education in serving the public good*, In A. Kezar, T. Chambers, J. Burkhardt, & Associates (Eds.), *Higher education for the public good*(pp.23~42).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Locke, E. A.(1976). The nature and causes of job satisfaction, In Dunnette, M.C.(Ed.),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pp.1297~1349), Chicago: RanMcNally.
- J. Karabel & A. H. Halsey. (ed.)(1985). Education and social structure: Theory and Practice of Sociology of Education, Gang, Sun-Won(Trans.). Seoul: Miraesa.
- Ward, K.(2003). Faculty service roles and the scholarship of engagement, *ASHE-ERIC Higher Education Report*, 29(5).
- Wolniak, G. C. & Pascarella, E. T.(2005). The effects of college major and job field congruence on job satisfac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7: 233~251.
- <http://www.academyinfo.go.kr/>
<http://www.hiedumap.net/>
-
- 논문접수일 : 2013년 06월 26일
 - 심사완료일 : 1차 - 2013년 07월 20일
 - 게재확정일 : 2013년 07월 29일